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김 명 순, 김 광 기, 허 은 정*
가천길대학,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음주양태와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음주관련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데 있다. 20세에서 59세까지의 경상남도 성인을 모집단으로 한 확률 표본 자료 중 여성에 관한 자료타내는 것만을 이차 분석하였다.

음주양태는 여성들이 얼마의 술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를 나으로 평생 음주율, 연간 음주율, 음주량 및 음주 빈도로 설명하였다. 음주관련 문제란 음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과 같은 병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음주자의 건강, 가정문제, 직장문제 및 법적인 문제 등까지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문제는 제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생 음주율은 80.3%였고, 연간 음주율은 7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은 음주율을 보였으며, 음주빈도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음주관련문제는 응답자의 27.3%가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였고 가족, 배우자, 직장,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결과적 문제, 사회적 결과 문제였다.

음주관련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종교행사 참여 빈도가 적을수록 결과 문제, 사회결과 문제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주량과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음주관련 문제가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주양태와 음주관련 측정변수들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음주양태와 음주관련문제의 성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 음주자들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지역 사회 중재실험 연구가 필요하다.